

마음이 부대끼는 이유

처음 믿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

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정은 깨져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과 영혼은 상처와 죄들로 얼룩졌다. 어둠의 영들은 그 상처의 쓴 뿌리를 통해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척 힘들었다. 마음이 왜 그렇게 부대끼는지 이유를 몰랐다. 아마 나처럼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기뻐지만 동시에 영적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 전에 지었던 죄의 잔재들이 기회를 엿보아 반격했다. 정말이지 헉헉대면서 주님을 따라갔다. 당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힘든 줄 알았다.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친구에게 물어봤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많이 힘든데, 너는 괜찮니?” 친구는 “나는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할머니 대부터 기도하셨어.” 순간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다. 선조들이 이미 영적 전쟁을 치러 승리했기에 일종의 영적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돌발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뺏아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종의 길을 가야 하니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당연했다. 하지만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대형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를 위해 쌓인 기도가 별로 없더구나. 부모의 쌓인 기도가 없으면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려울 수 있으니 너를 위한 중보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 너무나 서럽고 섭섭하게 들렸다.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며 육적으로도 궁핍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로하셨다. 그 후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신실한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후로 2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영적인 돌발은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었다. 초기에 겪었던 영적 어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죄와 상처로 얼룩져있던 내 마음이 정결해졌고, 풍부한 영적 유산이 부여졌다. 이렇게 내 내면을 정화시키고 영적으로 풍성한 유산을 가져다준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며 내 영혼을 오염시킨 더러움들이 씻겨 내려갔다. 말씀이 나를 고친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요 15:3,4)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엡 5:26) 성경을 보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씻는 물’이라고 하신다. 성전 성소 입구에 놓여있던 물두멍이 바로 말씀의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퍼센트 순결한 그분의 생각이다. 세상과 육신적인 생각은 오물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순결한 말씀의 물이 마음과 생각을 씻는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한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 19:7,8)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황폐하여 무너진 내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졌다. 점점 어둠이 물러갔고,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다. - 강대형의 “파이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47호 2018년 11월 25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시작기도 (Opening Prayer)

사회자

경배와 찬양 (Praise)

Malena Towers 선교사
연석윤 집사

설교 (Sermon)

시편 27:1 & 요 8:12 Darlene Line 선교사
Psalm 27:1 & John 8:12 통역: 박태열 목사

"Without Chanukah There Would Be No Christmas"

봉헌 (Offering)

봉헌특주 (Offering Special Music)

연석윤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주 월요일)

[다음주일 대표기도]

류영걸 권사

교 회 / 교 우 소 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매일성경 11월 12월호** 나왔습니다. 구입은 이미경 권사께 문의하세요.
- ◆ **다음주일(12/2)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 ◆ **선교사 자녀들에게 성탄선물 보내기.**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과자선물 박스를 보내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보내는 과자 한상자 값이 \$25입니다. 다음주 (12월 2일) 주일까지 모금합니다. 헌금봉투에 “선교사 자녀 성탄선물”이라고 적으시고 내시면 됩니다.
- ◆ **여성복클럽 5차 모임**이 11월 27일(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 **11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담임목사님 Pennsylvania에서 열리는 Conference에 참석하십니다. 수, 목, 금요일 새벽설교 없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 **11월 28일(수) 수요일예배**에 김희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증거해 주십니다.
- ◆ **12월 2일(일) 주일예배**에 우리교회가 속해있는 Cape Atlantic District의 Brian Roberts 감리사님 오셔서 말씀증거해 주시고 뮤지컬 배우(예수님 역)이신 Randy Brooks 형제님 오셔서 특송해 주십니다.
- ◆ **남부뉴저지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성탄찬양제가** 12월 9일(일) 오후 5시에 체리힐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 ◆ 친교는 점순Davis 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박민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 서 별 소 식

[목회협조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남선교회]

12월 1일(토) 새벽예배를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새벽예배후에 간단한 아침식사 있습니다.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중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11월 27일(화) 10:00am 여성복클럽 4차모임
12월 9일(일) 5:00pm 남부뉴저지교회협 성탄찬양제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3,573.85	출석총인원	48
십일조	\$1,110	KM 본예배	40
주정(주일)	\$743	주일학교	8
감사헌금	\$250		
선교헌금	\$70		
주일학교	\$10.85		
추수감사	\$1,39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친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2월 친 교 / 헌 화

2	조동남권사 / 조동남권사
9	최성혜사모 / 김인자권사
16	/
23	성탄주일
30	/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최종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	